

鍾 善
屋教会 長老)

1丁目965-1
031-4771(代)
字荒田14-1
031-8893(代)

하나뿐인 작품

엡2:1-10



亨
(川西教会牧師)

한 은혜로 구원을 얻은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10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승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시 주어진 부활과 승천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셨다. 그것은 마치 눈코가 가진 신체의 지정식을 예약했으면 보장된 나의 자리가 있듯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과 승천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는 상회일지라도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소중히 보시며,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인일찌라도 사랑으로 용서 속에 기다리고 계신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임을 밝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민감한 감정이나 주변화境들을 이용하여 우리 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백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때이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 중에는 영리를 위해 여러 개를 만드는 상품들이 있는가 하면, 흠을 붙여 넣어 단 하나만 만드는 작품이 있다. 가전제품이나 기계와 같은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제품이 나오지 않지만, 미술품이나 예술품같은 작가의 흠을 붙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어 예수님께서 시킨히 십자가 위에서 모박히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과 같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때로 세상과 육신의 부모에 게조차 기쁨이 되지 못하

를 실망시키고 비탄에 빠지게 하며 열등감을 갖게 하여 심축하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는 등 어둠의 노예가 되도록 속박하고 통속에 지내다 파괴에 이르도록 한다. 이제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유

어 넣어 만든 작품들은 사

간이 지나면 지나도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이 아닌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

아무리 좋은 작품일지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의 쿨란에서 발견된 몇천년 전에

악이 아니라同胞의多住地域
로傳道した。話の内容は
我々は祖国を離れ、ここ
まで来て生活するように
なつた。孤獨な人間同士が
交し合ひ、助け合ねばな
らない。同胞同士が争うこ
は國の恥であり、我々の

黑教会が信徒30名で設立さ
れるようになった。最初に
集まり礼拝をしたのは、崔
恒祥氏宅であつた。8月18
日には雜司ヶ谷教會で設立
礼拝が挙行された。信徒は
34名で、教會堂の家賃は毎
月20円であつた。

썩어진 귀중한 양피지 서
정 사본들이 구두제조업자 하
의 손에서 구두가 될뻔 했
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은 실을 받아
기에 목격 그대도 하나님
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飛である。だからイエスを
居し、酒・タバコをやめ、祝
面を受けましょう」という
ものであった（「みことば
に従って一生涯」162
ページ）。その時、徐ソンド
氏が酒に酔いつぶれなが
ら、「客地で酒なしには生
きることが出来ない。神な
くても立派に生きていけ
る」とし、金牧師は、32年の冬に東
京連合教会を辞任し、釜山
に戻り牧会すると共に、戦
後は学校教育にも尽力し、
ナムソン学院（46年）、訓星
学院（51年）、光星工業高等
学校（52年）、釜山神学校な
どを順次設立した。教育理
念にはキリスト教精神を柱
とし取り組んだ。

……”と叫んだ。金牧師は、彼が酔いから醒めるのを待ち、心血を注いで福音を宣べ伝えた。そして、長説得の末、徐氏は神を信じる人になった。これを機に、30年8月10日には、目

金吉昌牧師は、伝道師として10年、牧師として47年の活動を終えて、1977年に85歳で神に召された。その生涯は、まさに「みことばに従った一生涯」であつたといえる。

.....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복의 집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재인식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愛

取締役社長 李 鍾 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 2 番 21 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 5 2 (6 8 2) 1 1 7 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 2 - 55 - 5

장려

韓国食品・書籍・CD・ビデオ

(株)韓国広場

新宿店：東京都新宿区大久保1-17-7
TEL (03) 3232-5400
FAX (03) 3200-2949

代表取締役 金 根 熙

本 社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3633-7477(代)
 済州C・C 韓国済州市寧坪洞2238-2 TEL (064) 702-0451(代)
 ソウル事務所 韓国ソウル特別市鍾路区内需洞167 TEL (02) 739-3327(代)

별은 그런 역사적인 의
를 재조명하는데 있어
뜻깊은 내용이었다.

프로그래머는 3부로 구
되었으며 제1부는 재일동
한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
에 의한 연구 「우리들
독립성애론」이다. 청년
은 2·8독립선언의 정
을 재확인하면서 오늘날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
가자라고 호소했다.

제2부는 재일대한
崎教会 청년들의 Peace
Tomorrows를 강조하

경에 유흥온 조선인 유생들이 그 당시의 조선인 MC A 회관에 모여 조국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선언은 그 해 일어난 본의 3.1 운동에 큰 영향을

崎駅を中心にホームレス支援を行っている団体「水曜パトロール」の方々と夜回りをし、翌日にはカレー300食分の炊き出しがプログラム参加者の手によって行われた。炊き出しの後、幾つか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実際にホームレスの人たちの話を聞く時間も持たれた。

葉を超えた体を使つての交流は、其プロの大きな特徴であり、そういう意味からでもプログラム中ほとんどの移動は徒歩で行われた。朝鮮学校では最後に、教壇に立つ先生たちとの簡単な質問などを通しての交流の時間も設けられた。

ファイルドトリップ中には、現在の日本の右傾化の問題や、石原慎太郎都知事の差別発言などの説明も行った。

（報告… 裏素胃）

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편
화를 어떻게 피부로 느끼
고 있는지 예술적인 감각
으로 표현을 했다.

제3부는 '東京教會・그
로리아 찬양'과 한국에서

창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재일·페스티벌** 개최
지난 2월 6일(금) YMC
CA에서 「재일 페스티벌
우리들의 독립선언문
Peaceful Tomorrows」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2·8 독립선언 85주년
기념하여 공동지방자치
부, 청년노동자들 중심으
로 구성된 집행위원이 주
축이다. (집행위원장 지
사회부장 韓敏炫牧師
이에는 3번째이며 약
0명이 참가했다.

해서 호소하는 기도문이
다. 또한 일부에서는 청
저널리스트·親伯(오야
마리) 씨의 이라크전쟁
진전이 함께 있었다.

(報告·韓聖炫)

青年會關

李明先

2月29日、青年會関西
方連合會(關連)による3

李明先生
(京都韓国
学校教頭)
を講師に迎え開催

のようによい、今こそ手
こで行なわ差別に打ち勝
れたのかとらないのでは
いうことした。また、
や、関東大ク派兵までも
震災（19の右傾化や、
23年）時問題などに関
に多くの在考えをマスメ
日朝鮮人がている日本の
虐殺された本に住む私た
事実と、阪東アジア、と
神・淡路大鮮半島と日本
震災（19状を見つめ、
95年）にジョンを持つ
において、どののか、キリ
本人およびどののように日
在日韓国人のかを考え
朝鮮人が習会であった

(報告) 金谷志

2月29日、青年会関西地方連合会「関連」による3・1節学習会が、京都韓国中・高等学校の李明先生を講師に迎え、京都教会において行なわれた。参加者は14名（うち高校生2名）であった。

学習会では、殷俊一関連会長（平野）の司会のもと、開会礼拝が持たれた後、李明先生から「共生をめざして／私たちは何処に向かうべきか」という題で講演していただいた。講演で李先生は、3・1独立運動がど

の変化について話された。
講演を聞きながら、朝鮮
学校に通っているというだ
けで差別を受けている子ど
もたちの苦しみ考えた。
そして、私たちは韓国籍だ
から大丈夫というのではな
く、同じ民族として助け合

（京都韓国学校教頭）を講師に迎え開催

●申込みは、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事務所に